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수준 요인 분석*

정제영(鄭濟永)**

선미숙(宣美淑)***

정민지(鄭民智)****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 차원의 요인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학의 학생변동사항 중 일시적으로 해당 대학을 떠났다가 일정기간 후 학업을 지속하는 학업지속의 의지가 담긴 휴학과 전출을 제외하고, 제적과 자퇴를 중도탈락으로 정의하였다.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듀데이터 서비스 시스템(EDSS : Edu Data Service System)'을 통해 대학알리미 원시자료를 요청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대학알리미에서 '대학'으로 분류된 학교 가운데 186개 대학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대학 평판도 및 교육·연구 활동, 대학 재정·교육비, 교육 여건 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입학전형 최종 등록률과 정원내 신입생 경쟁률이 높을수록 대학생 중도탈락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 재정 및 교육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높은 것은 학생의 중도탈락률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의 교육 여건과 관련하여 기숙사 수용률은 대학생 중도탈락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중도탈락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대학생, 중도탈락, 중도탈락률, 대학 요인

* 이 논문은 2015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에듀데이터 활용' 기관세션(2015.8.29)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과정

I. 서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양적으로 매우 급격하게 팽창해 왔다. 고등교육의 양적인 증가는 연도별 대학 수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1980년 85개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179개교, 2010년 190개교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 196개의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1980년 27.2%에 불과했던 대학 진학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68%, 2010년 79%에 달하였으며, 2014년에는 70.9%로 조금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Trow(1973)는 고등교육 발전단계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해당 연령층의 대학 진학률이 15% 미만이면 '엘리트 단계', 15~50% 미만이면 '대중화 단계', 50%를 넘어서면 '보편화 단계'라 보았다. 이 모형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65년에 대학 진학률이 32.3%로 이미 15%를 넘어서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에 있었고, 1995년에는 대학 진학률이 51.4%로 보편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식과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면서 대학 경쟁력 제고 및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지속적인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앞으로 각 대학은 입학자원의 부족으로 대학 운영과 존립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김수연, 2006).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 대학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하였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2018년부터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수를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학의 충원을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교육부, 2014). 이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중도탈락률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학 알리미의 공시자료를 통해 대학생의 중도탈락률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의 경우 2000년 4.6%에서 2013년 7.6%로 중도탈락학생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4년제 대학 또한 2000년 3.6%에서 2013년 6.4%로 증가하였다. 실제로, 대학의 중도탈락 학생수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14만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국일보, 2015. 01. 16). 또한 교육부의 '중도탈락 대학생의 경제·사회적 비용' 자료에서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의 등록금, 입학금, 교재비 등을 추산하면 1인당 800만원 상단에 달하며, 중도탈락 학생들이 취업했을 때의 경제적 이익은 1인당 1,729만원으로 이를 종합하여 계산하면 총 2조 5,187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중앙일보, 2013. 12. 26).

대학생 중도탈락률의 증가에 따른 재학생 수의 감소는 대학 재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학 재정에는 대학등록금, 법인전입금, 적립금, 기부금, 외부 연구비 등이 포함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대학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학생 수의 감소는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대학교육의 질 저하 및 1인당 교육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김안나 외, 2002).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신입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는 관심이 높은 반면, 재학생을 유지하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오영재, 2005). 실제로 각 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시기간에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재학생을 유지하는데에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러한 현상은 국내의 연구경향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중도탈락학생 문제를 활발히 연구해오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반면 대학생의 중도탈락을 다루는 국내의 연구는 드문 상황이다(김성식, 2008; 채재은, 2011). 미국에서는 1970년 이후부터 중도탈락학생 비율이 결국 사회 진출 및 취업, 대학 재정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대학생 중도탈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김재웅, 1992).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학생의 중도탈락을 고등교육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 이유는 학생의 학적변동 사항인 자퇴, 제적, 휴학 등 중도탈락을 학생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나타나는 개인 수준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Tinto, 1987; 김재웅, 1992). 이와 같은 맥락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한 변수들이 대부분 개인적인 요인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학수준의 요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대학수준 요인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개인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시적인 관점에서 처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생의 중도탈락은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학 및 정부 수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중도탈락 현황을 살펴보고,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대학생 중도탈락률을 낮추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 중도탈락의 정의

대학생의 학업중단 및 중도탈락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 중도탈락의 개념적 범위와 내용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업중단은 학업을 지속하는 것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중도탈락이라고도 하며, 주로 퇴학, 휴학, 전출 등이 학업중단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그 범위가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임언, 곽윤영, 2011). 평생학습 시대이기 때문에 학령기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고, 학생이 사망하기 이전에는 그 학생의 학적 상태에 대해 학업중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이병식, 2003). 학생이 일정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학업중단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임언, 곽윤영, 2011).

Hoyt와 Winn(2004)은 학생의 학업중단과 관련한 개념을 퇴학(drop-out), 휴학(stop-out), 포기(opt-out), 편입(transfer-out)으로 분류하였고, 이병식(2003)의 연구에서는 퇴학(drop-out), 휴학(stop-out), 전출(transfer)을 학업중단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병식(2003)은 학업중단을 중도탈락과 같은 의미로, 학생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소속(membership) 상태를 중단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퇴학(drop-out)은 제적과 비슷한 의미로, 재학 중인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어 떠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휴학(stop-out)은 학생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었다가 학교로 돌아와 등록을 하여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분류하였다. 전출(transfer)은 본래 다니던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는 학업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Morrow(1986)가 구분한 중도탈락의 5가지 유형은 다른 연구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는데 Morrow는 중도탈락의 5가지 유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학생으로 판단되어 나가는 경우, 학교와 관련되기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 가정과 학교의 의견 불일치로 중퇴하는 경우,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주휘정과 차성현(2011)은 학생과 대학의 입장에서 퇴학, 전출, 휴학을 분류하였는데, 퇴학과 전출은 모두 대학을 완전히 떠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휴학은 잠시 학교를 떠나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일정기간 후에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태화(2002)는 학생이 특정 시기에 수학(修學)을 목표로 하면서 대학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학업지속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재학 중 학생이 학업을 그만두는 경우를 중도탈락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대학생 중도탈락의 개념 및 범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도탈락을 '학생이 제적과 자퇴의 사유로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학적을 확정적으로 상실

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대학의 학생변동사항 중에서 일시적으로 해당 대학을 떠났다가 일정기간 후 학교에 복귀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휴학이나 다른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전출은 제외하였다.

2. 대학생 중도탈락 관련 변인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업중단 또는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개인적 요인, 가정배경 요인, 대학생활 경험 요인, 대학특성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이필남, 2012). 고등학교와 대학의 단절된 교육과정이 대학 중도탈락의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김대석, 2011). 이 중에서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개인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에 학교 차원의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동안 대학생의 학업중단 현상은 개별 학생들의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학생의 개인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한 경향이 있다(주취정, 차성현, 2011).

최근 대학생 중도탈락에 관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점차 대학수준의 변인을 포함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김수연(2006)의 연구에서는 대학기관의 형태(2년제/4년제), 대학 소재지 등 대학기관 차원의 변수를 투입하여 대학생의 중도탈락률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병식(2003)의 연구에서는 입학성적, 대학의 규모, 설립 유형, 대학 소재지 등을 대학의 특성으로 보고 대학기관 특성이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임소현과 한유경(2013)의 연구에서는 대학 소재지, 규모, 계열 등 사립대학의 특성에 따라 중도탈락학생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보라와 장희원(2015)의 연구에서는 개인배경 요인과 대학 이전인 고등학교 재학시기의 특성과 함께 대학 유형, 설립유형, 전공계열, 대학 소재지 등의 대학기관 특성이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대학의 교육 여건 및 교육 활동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국내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대학생 중도탈락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Tinto(1975)는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생의 개인적인 변수에 초점을 두었다. Tinto는 학생의 중도탈락 여부는 학교에 대한 헌신, 교육에 대한 자신의 헌신 정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들은 개인적인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그의 연구에서는 성별, 인종,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학업능력, 교육포부 수준, 고등학교 성적을 변수로 설정하였고, 이와 함께 대학 설립유형 등을 변수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Anderson(1988)은 Tinto의 모형에 대학 특성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Anderson의 연구에서는 대학 특성변인으로 대학의 선별도, 전공 관련 변인, 학교의 규모 등을 변수로 두어, 우수

한 대학의 개구리 연못효과(frog-pond effect)가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으며, Stoecker, Pascarella와 Wolfe(1988)의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대학 특성으로 두는 대학 선별도 변수와 함께 대학의 평판(reputation)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대학생 중도탈락 관련 선행연구

선행연구	독립변수	종속변수
강승호(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배경변인 : 성별, 가정형편 · 학업적변인 : 고등학교 내신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 건강관련변인 : 흡연정도, 음주정도, 신체건강, 정신건강 · 사회심리적변인 :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유능감, 사회적 지지 	대학 중도탈락, 대학 학업성취도
김대석(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언어, 수리, 외국어) 요구 여부 	중도탈락률, 자퇴율
김성식(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활경험요인 : 대학생활만족도 	대학 중도탈락
김수연(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변수 : 성, 연령, 거주지,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의 일치 여부 · 부모변수 : 부모 교육수준, 부모직업과 가구 소득수준 · 기관변수 : 대학기관의 형태(2년제/4년제), 기관소재지 	학업지속, 대학 중도탈락
김용남(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학적 배경(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자가 여부) · 고교성취도(고교 성적) · 심리적 특성(대학 기대, 대학 헌신, 포부수준, 편입 의도) · 대학관련변인(전공계열, 학년, 대학 학령기, 학비부담 주제, 장학금 수혜 여부, 학자금 대출 여부) 	대학 중도탈락
김효은, 김기원(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설정 · 부모의 사회적지지 · 선배관계 · 자기계발 · 친구관계 · 학교적응 	대학 중도탈락
연보라, 장희원(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배경요인 : 성별, 부모교육수준, 가족구조, 가구소득 · 고등학교 재학시기의 특성 : 교육포부, 부모교육기대수준, 진로지도(6가지), 직업선택 시 적성고려 여부, 장래희망직업 결정 여부, 진로의식, 고등학교 계열 · 대학기관 특성 : 대학유형, 설립유형, 전공계열, 대학소재지 	대학 중도탈락
오영재(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전요인 : 진로지도, 대학선택, 가정 및 친구 요인 · 학생개인요인 : 성별, 연령, 지적요인(고등학교 성적, 대학 평균학점) · 단위대학요인 : 학문적 분위기(교육풍토, 제도요인), 사회적 분위기, 생활환경요인, 물리적 환경 · 문화· 경제적 요인 : 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대학 간 학생 이동

선행연구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영애(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요인 : 자신감 상실, 소극적 태도 · 학과에 대한 소속감 부족 · 성취동기 부족 	
이병식(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특성요인 : 대학입학난이도(입시성적) 	
임소현, 한유경(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특성요인 : 소재지, 규모, 계열 · 대학재정수입 : 재학생 1인당 등록금, 재학생 1인당 산학협력·보조금수익 · 대학재정지출 : 학생1인당 교육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대학 중도탈락
임언, 곽윤영(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특성요인 : 고교성적, 대학 및 전공만족도, 학습태도, 아버지의 학력, 가구소득 	
황정규(19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수준요인 : 학생의 가정형편 	대학 중도탈락, 대학 학업성취도
Astin(1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인 상황 	
Haines, Norris & Kashy(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이전 단계의 변인 : 불충분한 고등학교 선수학습 	
Kamens(1971), Anderson(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규모 	
Pascarella(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인종 	
Pascarella & Chapman(1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관련 변인 : 고교 성적, 이수 교과목, 입시성적 	
Stoecker, Pascarella & Wolfle(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평판, 대학 선별도 	대학 중도탈락
Tinto(1975), Pascarella(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설립 형태(국립/공립/사립) 	
Tinto(1975), Pascarella & Terenzini(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설립 유형, 등록금 	
Tinto(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단계의 개인적 변인 : 적성 및 흥미 · 대학 단계의 변인 : 전공 적응도, 전공 적성 	
Tinto(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대학생의 중도탈락은 학생 개인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대학 차원에서도 정책적 지원과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수준의 요인들이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듀데이터 서비스 시스템(EDSS : Edu Data Service System)’을 통해 대학알리미 원시자료를 요청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도 자료에는 일부 누락된 데이터가 있어 분석 자료의 기준년도는 2013년으로 설정하였다.

대학 유형에 따라 대학의 특성이 다양하며, 대학의 교육적 활동보다는 학교 유형에 의해 중도탈락률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알리미에서 ‘대학’으로 분류된 학교 가운데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기타학교, 분교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6개 대학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변수 설명

변수 구분	변수 설명
종속변수	
대학생 중도탈락률	(중도탈락 학생수/재적학생수)×100
독립변수	
대학 평판도 및 교육·연구 활동	
정원내 신입생 경쟁률	(정원내 지원자수/정원내 모집인원)×100
입학전형 최종 등록률	(최종 등록인원/최종 모집인원)×100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교내연구비+교외연구비)/전임교원수
전임교원 1인당 논문	(국내논문실적+국제논문실적)/전임교원수
대학 재정·교육비	
평균 등록금	전체학과 등록금의 합/정원내 입학정원의 합
재학생 1인당 장학금	(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재학생수
학생 1인당 교육비	총교육비/재학생수
교육 여건	
기숙사 수용률	(수용인원/재학생수)×100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편제정원계/전임교원수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수/교원법정정원)×100
대학 소재지	비수도권=0, 수도권=1
대학 설립유형	국·공립=0, 사립=1

2. 분석방법

대학의 학교 요인이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추정식을 이용하는 회귀분석으로 여러 개의 독립변수 중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종속변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모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통계적 방법이다(성태제, 2007).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은 알고자 하는 독립변수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면서 대학의 교육 여건 및 교육 활동 변인들의 설명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중도탈락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 대학 평판도, 교육·연구 활동, 대학 재정·교육비 및 교육 여건 변인을 위계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1에서는 대학의 사회적 평판을 대변하는 입시경쟁률 및 최종 등록률과 교육·연구 활동을 변수로 투입하였으며, 모형 2에서는 대학 재정·교육비를 변수로 투입하고, 모형 3에서는 교육 여건 변인들을 투입하여 대학의 교육 여건 및 교육 활동 변인들이 중도탈락률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Y = \beta_0 + \sum_{i=1}^n \beta_i X_i (\text{대학 평판 및 교육·연구}) + \sum_{j=1}^m \beta_j X_j (\text{재정·교육비}) + \sum_{k=1}^l \beta_k X_k (\text{교육 여건}) + \epsilon$$

X_i = 정원내신입생 경쟁률, 입학전형 최종 등록률,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 논문
 X_j = 평균 등록금, 재학생 1인당 장학금, 학생 1인당 교육비
 X_k = 기숙사 수용률,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 자료의 대학 가운데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타 대학, 분교를 제외한 186개 학교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는 다음 <표 3>과 같다. 186개 4년제 대학의 대학생 중도탈락률 평균은 5.12%로 나타났으며, 가장 중도탈락률이 높은 대학은 2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평판도 및 교육연구 활동과 관련된 정원내 신입

생 경쟁률 평균은 7.0%, 입학전형 최종 등록률 평균은 92.4%로 나타났으며,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평균은 4,507만원, 전임교원 1인당 논문 평균은 약 0.9편으로 나타났다. 대학 재정 및 교육비 관련 변인인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약 646만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 평균은 276만원,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은 약 1,23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여건 변인으로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30.0%,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평균 29명, 전임교원 확보율은 8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구분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대값	범위
종속변수						
대학생 중도탈락률	%	5.12	3.086	0.7	22.3	21.6
독립변수						
대학 평판도 및 교육·연구 활동						
정원내 신입생 경쟁률	%	6.94	4.351	0.0	26.0	26.0
입학전형 최종 등록률	%	92.37	15.142	4.0	100.0	96.0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백만원	45.07	72.845	0.0	611.4	611.4
전임교원 1인당 논문	편	0.86	0.377	0.0	2.7	2.7
대학 재정·교육비						
평균 등록금	백만원	6.46	1.523	1.7	9.0	7.3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백만원	2.76	0.930	1.2	8.3	7.1
학생 1인당 교육비	백만원	12.36	8.183	6.6	84.5	77.9
교육 여건						
기숙사 수용률	%	30.01	44.645	0.0	440.0	440.0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명	28.81	7.751	7.6	77.7	70.1
전임교원 확보율	%	80.72	24.706	31.0	207.0	176.0
대학 소재지	수도권=1	0.37	0.484	0	1	1
대학 설립유형	사립=1	0.82	0.383	0	1	1

대학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학교 33개교(17.7%), 사립학교 153개교(82.3%)로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한 대학이 69개교(37.1%),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이 117개교(62.9%)로 나타났다. 대학 설립유형 및 소재지에 따라 대학생 중도탈락률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수도권 대학의 중도탈락률(4.04%)이 비수도권 대학의 중도탈락률(5.75%)보다, 국·공립대학의 중도탈락률(3.34%)이 사립대학의 중도탈락률(5.5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한편, 대학 소재지를 통제한 이후에도 설립유형별로 대학생 중도탈락률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역을 구분하여 차이 분석(t검정)을 실시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학 설립유형에 따라 중도탈락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학 설립유형에 따른 중도탈락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대학생 중도탈락률 현황

구분	사례수(%)	중도탈락률(%)	표준편차	t
전체	186 (100.0)	5.12	3.086	
수도권	69 (37.1)	4.04	2.306	
국·공립	6 (3.2)	2.70	1.142	
사립	63 (33.9)	4.17	2.353	-1.502
비수도권	117 (62.9)	5.75	3.313	
국·공립	27 (14.5)	3.49	1.512	
사립	90 (48.4)	6.43	3.408	-6.365***

***p<.001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교육 여건 및 교육 활동이 대학생 중도탈락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기 위해 정원내 신입생 경쟁률, 입학전형 최종 등록률 등 대학 평판도 및 교육·연구 활동, 대학 재정보육비, 교육 여건 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회귀분석 전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지 진단하기 위해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 소재지와 정원내 신입생 경쟁률이 .527, 대학 설립유형과 평균 등록금이 .709,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와 전임교원 확보율이 -.823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변수 가운데 정원내 신입생 경쟁률, 평균 등록금,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만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표 5>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정원내 신입생 경쟁률	1											
2. 입학전형 최종 등록률	.389**	1										
3.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272**	.160	1									
4. 전임교원 1인당 논문	.284**	.325**	.303**	1								
5. 평균 등록금	.276**	.100	-.152	-.100	1							
6. 재학생 1인당 장학금	-.067	-.096	.262*	-.029	.161*	1						
7. 학생 1인당 교육비	.074	-.026	.511**	.116	-.102	.436**	1					
8. 기숙사 수용률	-.301**	-.381**	.166	-.207**	-.202**	.243*	.371**	1				
9.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139	-.079	-.313**	.000	.049	-.087	-.427**	-.169*	1			
10. 전임교원 확보율	.054	.040	.279**	.002	-.093	.062	.522**	.244*	-.823**	1		
11. 대학 소재지	.527**	.147	-.003	.098	.350**	-.051	.019	-.226**	.078	-.020	1	
12. 대학 설립유형	.071	-.059	-.276**	-.249**	.709**	.096	-.075	.009	.162	-.006	.182	1

***p<.001, **p<.01, *p<.05

2. 대학생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수준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수준 요인 분석을 위해 대학 평판도, 교육·연구 활동, 대학 재정·교육비 및 교육 여건 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및 공차, VIF값을 분석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는 대학 평판도와 교육·연구 활동을 변수로 투입하였으며, 모형 2에서는 대학 재정·교육비, 모형 3에서는 교육 여건 변인들을 투입하여 대학의 교육 여건 및 교육 활동 변인들이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모형 1의 F통계값은 17.272, 모형 2의 F통계값은 12.168, 모형 3의 F통계값은 13.055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의 중도탈락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모형 요약

구분	R	R ²	adj R ²	F	통계량 변화량	
					R ² 변화량	F 변화량
모형 1	.530	.281	.264	17.272***	.264	17.272
모형 2	.573	.329	.302	12.168***	.038	4.138
모형 3	.637	.406	.375	13.055***	.073	11.177

***p<.001, **p<.01, *p<.05

모형 1에서는 대학의 사회적 평판 및 교육·연구 활동이 대학생 중도탈락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의 명성 및 평판도를 고려할 수 있는 정원내 신입생 경쟁률, 입학전형 최종 등록률,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와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실적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정원내 신입생 경쟁률이 높을수록, 입학전형 최종 등록률이 높을수록,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주 실적이 높을수록 대학생 중도탈락률은 낮게 나타났다. 모형 1의 설명력은 26.4%로 대학 평판 및 교육·연구 활동 변인이 대학생 중도탈락률 변화에 26.4%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대학 재정 및 교육비가 대학생 중도탈락률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 등록금, 재학생 1인당 장학금,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정원내 신입생 경쟁률과 입학전형 최종 등록률이 높을수록 대학생 중도탈락률은 낮게 나타났으며,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많을수록 대학생 중도탈락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와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실적, 평균 등록금 및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대학생 중도탈락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adj R² 값은 .302로 모형 1의 adj R² 값에서 0.038 변화하였으며, 이는 대학 재정·교육비가 대학생 중도탈락률 변화에 약 3.8%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는 대학의 교육 여건이 중도탈락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숙사 수용률과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를 추가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정원내 신입생 경쟁률과 입학전형 최종 등록률은 여전히 중도탈락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임교원 1인당 논문게재 실적이 높을수록 중도탈락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수용률이 높을수록 중도탈락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중도탈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adj R² 값은 .375로 대학 교육 여건 및 교육 활동 변인이 대학생 중도탈락률 변화를 약 37.5%정도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adj R² 변화량은 0.073으로 이는 대학의 교육 여건이 대학생 중도탈락률 변화량의 약 7.3%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모형 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입학전형 최종 등록률(-.312), 정원내 신입생 경쟁률(-.296), 기숙사 수용률(-.279),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171), 전임교원 1인당 논문게재 실적(-.166)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전형 최종 등록률과 정원내 신입생 경쟁률이 높을수록, 기숙사 수용률이 높을수록, 전임교원 1인당 논문게재 실적이 좋을수록 중도탈락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중도탈락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대학생 중도탈락률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요인 분석

	모형 1			모형 2			모형 3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B	SE		B	SE		B	SE	
대학 평판도 및 교육·연구 활동									
정원내 신입생 경쟁률	-.151	.051	-.214**	-.193	.053	-.275***	-.208	.052	-.296***
입학전형 최종 등록률	-.045	.014	-.223**	-.052	.014	-.258***	-.063	.014	-.312***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010	.003	-.220**	.001	.005	.027	.000	.004	-.006
전임교원 1인당 논문	-.864	.575	-.105	-.872	.569	-.106	-1.364	.549	-.166*
대학 재정·교육비									
평균 등록금				.141	.146	.069	.088	.139	.043
재학생 1인당 장학금				-.026	.259	-.008	-.075	.249	-.022
학생 1인당 교육비				-.115	.038	-.304**	-.035	.040	-.093
교육 여건									
기숙사 수용률							-.019	.005	-.279**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069	.027	.171*
(상수항)	11.540	1.220		12.566	1.578		12.259	1.870	
adj R ²		.264			.302			.375	
adj R ² 변화량			.038			.073			

***p<.001, **p<.01, *p<.05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수준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EDSS의 2013학년도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대학의 교육 여건 및 교육 활동이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 평판도 및 교육·연구 활동, 대학 재정·교육비, 교육 여건 변인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평판도 및 교육·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입학전형 최종 등록률과 정원내 신입생 경쟁률이 높을수록 대학생 중도탈락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전형 최종 등록률과 정원내 신입생 경쟁률은 대학의 명성, 평판과 관련된 지표임을 고려할 때 대학의 평판, 즉 좋은 대학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대학의 중도탈락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주 실적 및 논문게재 실적이 높을수록 중도탈락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제고가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수한 교원에 의해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확인해 주는 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임교원의 논문게재 실적은 교원의 연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교원이 지속적인 연구노력과 성과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대학 차원에서 우수한 교원을 선발하고,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연구 역량을 고취하도록 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대학의 명성 및 평판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 재정 및 교육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높은 것은 학생의 중도탈락률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교육에 투자되는 총교육비를 학생수로 나눈 것으로, 교육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 및 교육비 지출 패턴과 대학교육의 투입, 과정, 산출지표의 관계를 패널회귀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이필남(2014)의 연구에서도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이 교육의 질 지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다만,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 중도탈락학생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재정요인이라고 분석한 연구(임소현, 한유경, 2013)도 있어 일반화된 해석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학 소재지 및 대학 설립유형별 중도탈락률에 대한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에 비해 중도탈락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국·공립대학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고, 비수도권에서는 국립대학의 평판도가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평균 등록금이나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대학생의 중도탈락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대학의 재정요인은 복잡한 함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학의 교육 여건과 관련하여 기숙사 수용률은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기숙사 수용률이 높을수록 중도탈락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의 크기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10월에 공시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4년제 일반대학 기준으로 기숙사 수용률이 평균 18.6%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지방출신 학생이 많은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13.7%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의 규모를 넓히고, 기숙사를 추가 건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 중도탈락률 개선을 위해서도 이러한 학교 차원의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 여건의 또 다른 측면에서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중도탈락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교육의 여건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결과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양적으로 빠르게 팽창하였지만, 교육 여건의 개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 명의 교원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학생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적시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학생의 중도탈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급격한 국제화로 인해 대학교육의 경쟁에서 국경이 사라지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학교육에서는 무크(MOOC :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 차원에서 학생의 학습과 생활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의 중도탈락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최근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신입생의 충원, 그 중에서도 우수 학생의 선발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 신입생의 충원과 함께 대학교육의 질적인 제고를 통해 재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과 함께 대학생의 학습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 중도탈락에는 학생 개인적 특성에서부터 가정배경, 지역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단위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기 때문에 대학수준의 특성이 중도탈락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학생 개인 변인이나 대학 경험 변인 등 그 외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평균 등록금,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대학생의 중도탈락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수준의 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개인 요인과 결합된 종단적 자료(longitudinal data)를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개인 요인이 통제된 상황에서 대학 요인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여 점차 증가하는 대학생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승호(2010).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중도탈락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교육평가연구**, 23(1), 29-53.
- 교육부(2014).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 김대석(2011). 대입시 현황과 대학 중도탈락률 분석을 통해서 본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성식(2008). 대학생의 학업중단 및 학교이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대학선택요인과 대학생활만족도의 영향. **한국교육**, 35(1), 227-249.
- 김수연(2006).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중도탈락 요인 분석. **한국교육**, 33(4), 33-62.
- 김안나, 이병식, 장수명, 박남기(2002). **생애능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체제의 질관리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용남(2009). 대학생의 학업중단 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김재웅(1992). 미국 대학생 중도 탈락: 개인·사회구조·대학의 중요성. **교육행정학연구**, 10(1), 17-48.
- 김효은, 김기원(2011).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미치는 교우관계의 영향력과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패션비즈니스**, 15(4), 87-109.
- 성태제(2007).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연보라, 장희원(2015). 대학생의 중도탈락 시기 및 영향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5(1), 129-155.
- 오영재(2005). 대학 간 학생이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3(1), 327-356.
- 이병식(2003). 대학생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기관 특성의 탐색적 분석. **교육학연구**, 41(2), 135-154.
- 이영애(2006). 대학 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9(1), 95-104.
- 이필남(2012). 여대생의 재학기간 연장과 중도탈락 결정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0(1), 207-233.
- 이필남(2014). 사립대학 재정지출 변인과 교육의 질 관계에 대한 탐색적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3(2), 235-266.
- 임소현, 한유경(2013). 사립대학의 재정요인이 학생의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2(2), 83-113.

- 임언, 곽윤영(2011). 여자 대학생의 학업중단 유형 분류 및 관련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30(2), 231-248.
- 정태화(2002). 미국에서의 전문대학 학생보유 연구에 관한 시사점 분석: 재학생 감소 시기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21(2), 327-342.
- 주취정, 차성현(2011). 대학생의 휴학 결정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1), 277-293.
- 채재은(2011). 대학생들의 휴학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1), 295-317.
- 한국교육개발원(2014).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황정규(1977). 정의적 행동특성, 사회계층, 학교성적의 인과관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논문집*.
- Anderson, K. L. (1987). Persistence, student background, and integration/commitment: variation by definition of persistence and institutional typ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Higher Education Annual Meeting paper*.
- Anderson, K. L. (1988). The impact of colleges and the involvement of male and female students. *Sociology of Education*, 61(3), 160-177.
- Astin, A. W. (1975). *Preventing students from dropping out*. San Francisco: Jossey-Bass.
- Haines, M. E., Norris, M. P., & Kashy, D. A. (1996). The effects of depressed mood on academic performanc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7(5), 519-526.
- Hoyt, J. E. & Winn, B. A. (2004). Understanding retention and college student bodies: Difference between drop-outs, stop-outs, opt-outs, and transfer-outs. *NASPA journal*, 41(3), 395-417.
- Kamens, D. H. (1971). The college "charter" and college size: effects on occupational choice and college attrition. *Sociology of Education*, 44(3), 270-296.
- Morrow, G. (1986). Standardizing practice in the analysis of school dropouts. *Teachers College Record*, 87(3), 342-355.
- Pascarella, E. T., & Chapman, D. W. (1983). A multiinstitutional, path analytic validation of Tinto's model of college withdrawa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0(1), 87-102.
- Pascarella, E. T. (1985). Racial differences in factors associated with bachelor's degree completion: A nine-year follow-up.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23(4), 351-373.
- Pascarella, E. T., & Terenzini, P. T. (1991). *How college affect students: Findings and insights from twenty years of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 Stoecker, J., Pascarella, E. T., & Wolfle, L. M. (1988). Persistence in higher education: A 9-year test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29*(3), 196-209.
- Tinto, V. (1975). Dropout from higher educ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of recent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5*(1), 89-125.
- Tinto, V. (1987).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into, V. (1992). Student attrition and retention. In Clark, B. R., & Neave, G. R. (Eds.), *The encyclopedia of higher education*. Oxford: Pergamon.
- Trow, M. (1973). *Problems in the transition from elite to mass higher education*. Berkeley: Carnegi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중앙일보(2013. 12. 26). 중도탈락 대학생 사회적 비용 연간 3조 2052억

<http://news.joins.com/article/13487492>에서 2015. 9. 15 인출.

한국일보(2015. 01. 16). “재수·편입위해” 한 해 14만 명이 대학 그만둔다.

<http://www.hankookilbo.com/v/98d28e1f5553419c85b61858d4619394>에서 2015. 8. 12 인출.

* 논문접수 2015년 11월 3일 / 1차 심사 2015년 12월 7일 / 게재승인 2015년 12월 21일

* 정재영: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행정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jychung@ewha.ac.kr

* 선미숙: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생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교육행정 전공 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이다.

* E-mail: mssun@ewha.ac.kr

* 정민지: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이다.

* E-mail: jmj8750@naver.com

Abstract

An Analysis of Institutional Factors Affecting on College Dropout Rates*

Chung, Jae Young**

Sun, Mi Suk***

Jeong, Min Ji****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factors affecting on college dropout rates. Among many types of college dropout, this study excludes stop-out and transfer. This study used data drawn primarily from the EDSS (Edu-Data Service System) of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and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This study analyzed influence of institutional factors on college dropout rates using collected data from 186 four-year universitie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this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inal enrollment rate and competition rate of applicant had positive influences on college dropout rates. Second, the educational cost per student is the financial factor that influence to reduce college dropout rates. Third, accommodation rate of dormitor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college dropout rates, while faculty-student ratio had a negative influence on college dropout rates.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and further studies on this topic are suggested.

Key words: College student, Dropout, Dropout rates, Institutional factors

* This study is revised version of article which was presented in 2015 Kore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 Doctoral students, Ewha Womans University.

**** Master's degree student, Ewha Womans University.